

문 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	과 장 박용주 사무관 이준재	042-481-5063 042-481-507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19년 1월 2일(수) 배포 즉시 보도 바랍니다.	

특허청, 기업을 위한 ‘중국 지재권 실무 가이드북’ 발간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중국 진출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국 지재권 출원, 심판청구, 침해대응 절차와 실무 노하우를 담은 『중국지재권 실무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최근 중국은 미국과 무역 분쟁을 계기로 지재권 보호와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고 있으나, 모조품, 상표 탈취, 한류 모방상품 유통기업의 확산 등을 통한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지재권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북은 중국 지재권제도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기업 스스로 선제적인 중국 지재권 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이드북은 출원, 심판, 침해 대응으로 나뉘어 총 3권으로 이루어졌으며, 각권은 중국의 4대 지재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항목별 핵심 절차와 실무 노하우를 담고 있다.

특히, 침해대응 가이드는 지재산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침해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고,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와 침해주장을 받은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행정·사법적 구제절차와 노하우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특허청 박용주 국제협력과장은 “중국에 이미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설문 등을 바탕으로 제작된 이 가이드북이 중국 내 지재산의 관리전략을 고민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가이드북은 중국 내 공관 및 IP-DESK, 지역지식재산센터, 지방중소기업청, KOTRA,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의 신청을 받아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며, 1월 3일부터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해 그 전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 사무관 이준재(☎ 042-481-5070)에게 연락 바랍니다.

[붙임] '중국 지재권 실무 가이드북' 표지

